

# “의대 문제, 道·지역·정치권·도민 함께 노력해야”

## 김지사, ‘공모 방식 의대 설립 대학 추천’ 구상 지원 호소 중대재해 예방·무안공항활성화협의체 숲 시·군 확대도

김영록 전남지사는 7일 “(전남권 의대 설립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남도, 목포대, 순천대, 순천시, 목포시, 국회의원, 국회의원 당선자, 도의회, 시·군의회, 도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12일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협력을 위해 목포대·순천대, 목포시장·순천시장과 공동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 관련 수요 조사를 반영해 이달 말까지 대

입 전형 시행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난 1일 정부에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정원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과정에서 200명 배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의대 문제와 관련, 김 지사가 이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정치권, 도민의 공동 노력을 강조한 것은 순천지역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공모 방식’을 통한 의대 설립 대학 추천 구상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 강화를 지시했다. 그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각 실·국에서 소관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최근 도내에서도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중대재해 처벌법에는 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안전·보건 의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

문했다. 김 지사는 또 “교육도 중요하지만 공사 전 사전 안전 점검과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며 “시·군과 협조를 통해 철저한 교육과 안전 점검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관련, 김 지사는 “무안국제공항은 전남도 전체의 국제공항이며 광주의 관문이자 더 넓게는 충청권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서남권 거점 공항이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

했다. 특히 김 지사는 “올해 무안공항 이용객 수가 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무안공항 KTX 역사가 완공되고 이를 기점으로 이용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도록 밑바탕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지원책을 함께 마련하고 최근 협약을 한 무안공항 활성화 협의체를 기존 6개 시·군이 아닌 22개 모든 시·군이 함께 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 姜시장 “GGM 민노총 가입, 상생협약 신뢰 흔들리는 모습”

## “35만대 생산까지 노사민정 협약 차질없이 지켜져야”

강기정 광주시장은 7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일부 노동자들이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한 것에 대해 “GGM 현장에서 상생협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GGM으로 대표되는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광주의 통 큰 제안이었다”며 “GGM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사민정이 합의한 광주형 일자리다. 기업이나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특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사민정은 35만대 생산까지 상생 협약을 이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고 협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광

주시를 비롯해 기울여야 했다”고 설명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212명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던 주거비 지원금을 57명에게 27만2천원으로 확대했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30만원으로 늘리기 위해 추경에 반영했다고 강 시장은 그동안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 강 시장은 “주거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공동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임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가장 낮은 1년 차 기술직 보수 총액도 연간 3천7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 시장은 “오는 7월 시작되는 GGM 전기차 생산과 판매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광주시는 취득세 50 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경에 역시



강기정 광주시장이 7일 오전 시청 기자회견에서 주요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담았다”며 “GGM 역시 지속 가능한 생산성 유지를 위해 추가 생산할 차종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다시 한번 35만대 생산까지 노사민정 상생 협약이

차질 없이 지켜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선강기자

차질 없이 지켜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선강기자

## 마늘 2차 생산 피해, 농업재해 인정 전남도건의 반영 매출 저온 피해도

전남도는 7일 “작은 강우와 일조량 감소 등에 따른 마늘 2차 생산(벌마늘) 피해와 매출 저온 피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 재해 인정을 건의한 것이 반영돼 오는 13일까지 피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2-3월 평년보다 49% 늘어난 잦은 강우, 평년보다 24% 줄어든 일조량 부족 등으로 마늘 2차 생산 발생률이 평년(2% 안팎)보다 높은 30-40% 정도가 발생했다. 또 2월 저온(최저 8.5℃)으로 매실의 수정 불량, 꽃 및 고사 등에 따른 착과 불량도 30-50% 정도 발생했다. 매실 개화기 한계 온도는 22℃다.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는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갖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피해 접수를 받은 읍·면·동에서는 피해 농가, 마을 이장 등과 합동으로 피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북구비는 피해 정도에 따라 1ha(3천평) 기준 농약대 평균 250만원, 대과대 550만원을 지원한다. 피해율에 따라 50% 이상 농가에는 생계비와 농업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등)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재해대책 경영자금 융자 지원, 고교생 학자금 감면 등도 이뤄진다. 김영석 식량원예과장은 “피해 농가가 빠짐없이 신고해 조사에 누락되지 않길 바란다”며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농협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함께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 姜시장·김지사,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

## 광주시, 목표 달성·소통 호평...전남도, 2년 연속 ‘SA’ 등급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7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시·도 단체장 공약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말 기준 ▲공약 이행 완료(100점) ▲2023년 목표 달성(100점) ▲주민소통(100점) ▲웹소통(Pass/Fail) ▲일지도(Pass/Fail)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강기정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은 2023년 공약 목표 달성도와 주민 소통

분야 최우수(SA) 등급을 획득하는 등 종합평가 결과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또 웹소통과 일지도 분야에서는 합격점을 받았다. 광주시는 ▲미래모빌리티 특화산단 조성 추진 ▲광주다움 돌봄체계 구축 ▲농민수당 지급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 ▲도시경관 차원의 조화롭고 매력적인 스카이라인 관리 등 민선 8기 공약을 실천 계획대로 추진, 2023년 목표 달성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기정 시장은 “앞으로도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광주시의 손에 잡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 등급(SA)을 받았다. 민선 8기 김영록 지사 공약은 8개 분야, 20개 전략과제, 100개 실천과제로 이뤄져 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100개 공약 중 8개 공약을 완료하고 69개 공

약을 정상 추진 중이다. 김영록 지사는 “공약은 도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므로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민 중심 정책 역량을 결집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남 미래 100년 기틀을 다지는 데 적극적으로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등급(SA)을 받은 시·도는 광주·전남을 비롯해 서울, 부산,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총 9곳이다. /박선강·양시원기자

약을 정상 추진 중이다. 김영록 지사는 “공약은 도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므로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민 중심 정책 역량을 결집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남 미래 100년 기틀을 다지는 데 적극적으로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등급(SA)을 받은 시·도는 광주·전남을 비롯해 서울, 부산,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총 9곳이다. /박선강·양시원기자

약을 정상 추진 중이다. 김영록 지사는 “공약은 도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므로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민 중심 정책 역량을 결집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남 미래 100년 기틀을 다지는 데 적극적으로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등급(SA)을 받은 시·도는 광주·전남을 비롯해 서울, 부산,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총 9곳이다. /박선강·양시원기자

알고당시다

## 개인형이동장치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범칙금 10만원**
- 승차정원 초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범칙금 4만원**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  
**범칙금 10만원**
-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10만원**

KoROAD 도로교통공단